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원산시에서 열린 대절찬 속에 진행

지역경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승리봉을 향한 만리마고조의 거세한 승기로 유통되는 강원형에 우리 당 사상문화전선의 제일기수, 선군혁명의 제일나팔수들의 혁명의 노래, 시대의 전구가가 끝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동해의 항구문화도시 원산에서 첫 막을 올린 때로부터 세 번 간격과 함께 펼쳐지는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앱없는 찬사를 받으며 성황리에 계속되고 있다.

뜻깊은 공연을 보기 위해 도안의 시, 군들에서 모여온 각계 총 군중들이 송도원청년야외극장은 편안한 인산인해를 보이고 있다.

비약하는 단련마시대의 기상이 나래치고 자력경쟁 훈련 군데 오에 혁명열, 무정열, 애국열을 뿐만 아니라 관람자들의 대인민족에 전통되고 있다.

『만리마시대』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인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저는 글벌이 무대 배경에 새겨지는 가을에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애술인들이 무대에 나오자 열렬한 박수갈채가 떠서울렸다.

백두의 냄과 기상을 암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존엄높은 주체의 역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공민권 자긍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애국가의 광활한 선율이 9월의 하늘로 퍼져나왔다.

애국의 숭결로 높뛰게 하는 우리의 국가를 심장으로 부르는 관람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강원도인민들의 숭고한 사랑을 담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맵여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한껏 어려있었다.

남성특창과 남성합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에서 출연자들은 백두산질세워인들의 태월하고 새련된 행도법에 날대와 새 기를 이어 자랑찬 승리막을 절은 기록에 이로 새기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력사를 평척가는 어머니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기하였다.

우리 당에 대한 칭송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무대에 울려 퍼진 『당을 노래하노라』,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어머니의 목소리』, 『당이 이 그대 있게 이해』 등으로 동등한 가사를 관람자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었다.

온 나라 인민을 온 해로운 사랑의 한풀에 안아 차관련·삶과 행복을 물파워 주는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심이 천만심장의 노래되어 미아리치는 공연장소는 끝없는 적정으로 파도쳤다.

대를 이어 수령복, 당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원회가 더욱 끌어 넘치는 속에 남성 3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경음악 〈내 나와 제일로 좋아〉』, 『네성중창 『조국과 나』』, 『설화시 『영광의 땅, 강원도』』, 『가수 『보란듯이』』,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 『라크줄 『청춘시절』』, 『남성중창 『인생의 영광』』 등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강원도인민의 애국도원, 경애하는 원수님을 반드시 물어드려겠다는 흥정의 마음을 암고 수령의 유혹, 당의 조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여 자강제계 일주의의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강원도인민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명 깊게 보여 주었다.

위대한 전변의 력사, 번영의 력사를 추억 깊이 되새겨주는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새롭게 힘을 더하고 전진하는 원수님의 힘을 향해 힘차게 박수갈채를 했다.

들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답게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승리의 포성을 더욱 높이 울려 퍼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풀이었다.

로동당의 은덕으로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 더욱 면모되는 강원땅의 흥하는 모습이 네성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운명의 찬란한 희망이 신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주체 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만이 있다는 철리를 새겨준 공연은 종종 『김정은강군에 영광을』로 끝났다.

기적의 만리바다 농부시계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거창한 천연, 자력경쟁의 기치 높이 최후승리의 전군가를 높이 울려 퍼하는 우리 인민의 억센 기개를 감동적인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접한을 받았다.

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누구나 흥분을 금지 못하며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강원도네영위원회 위원장 킴명숙은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천배째로 분출시키는 위력한 예술의 힘을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을 보내주신 것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업적을 이룩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북하신 영상이 무대 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은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넘길 못하는 주체 조선의 힘을 더하고 전진하는 원수님의 행보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힘을 더하고 있다.

그 사랑속에 강원도인민들이 어제날에는 리제 산운동의 선구자, 청강의 네성포수와

남강마을녀성풀, 규장의 세 통서와 같은 애국자들로, 오늘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자라나 부강조국건설사에 위훈의 자자들을 자랑스럽게 새겨줄 수 있었다.

실험시 『영광의 땅, 강원도!』는 모두의 실장을 세차게 울리었다고 하면서 원산시 상동에서 사는 전령로령 정준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시의 무질구질마다에서 우리 도의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이 뜨겁게 어려어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허처가신 선군정신의 힘로 양경이 안겨와 흐르는 눈물을 걸さまざま 없었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경복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전화의 그 나날처럼 조국의 부강번영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만 해도인민들에게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떨아온 공연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대동자 최금선은 정말 최고의 멋진 공연을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아름답고 눈부신 미래가 펼쳐질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울翕을 된다. 강원도인민들은 우리 사랑에 헌신한 공연무대를 마련해 주신 원수님의 그 사랑에 혁신적 성과로 꾸밀고하겠다고 각동된 실정을 더 높였다.

공연을 관람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 따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지역 생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대비적 혁신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후승리 힘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전진총력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것을 믿는 열의에 넘쳐 있었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오직 자기의 힘으로

주체조선의 하늘가에 만세의 함성이 끝없이 메아리친다. 그 어떤 향에도 굽할 줄 알지 못하는 주체조선의 기상으로 『화성-12』형이 또 다시 눈부신 설광과 영암한 복음을 올리며 온 행성을 휘둘며 창공에 치솟아올랐다.

조국땅 그 어디에 가나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온갖 죽대세력을 도전과 압력을 쳐갈기시며 최후승리의 전진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흥보의 정으로 이 야기꽃을 피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 자살의 독점물이 아니며 절히 원자란으로 우리를 위협공급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추억은 지금으로부터 3년간 6월의 어느날에로 거슬러 올라온다.

그날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

들의 기습기습은 끊없는 환희로 놀뛰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술로에 있는지도를 떠나 전쟁의 기치는 그 누구도 멈춰 질지에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의 힘에 의해 어서만 담보되는 것만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위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 힘의 지위적역학력을 전개해보니 더욱 다져나가는데 최대의 힘을 더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다.

그리면서 우리의 위업과 자주권, 생존권을 위협하고 침략하는 침략무리들이 일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전략군의 싸움준비를 강화하고 주체적인 로케트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을 더욱 발전화시키면서 친박한 조선인민의 기습속에 더욱 깊이 부끄러워지는 력사의 진리, 철의 진리이다.

이는 우리 혁명이 걸어온 역사의 로정과 더불어, 올해에 국방 분야에서 이룩되고 있는 자랑찬 경기력을 뛰어넘어 커다란 판도를 벗어나는 철학이다.

제속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략군장병들이 조성된 정체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적동성에서 강위력한 판도로 로케트들을 임의의 순간에 발사할 수 있도록 만만한 조선인민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 전략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희

조선은 21세기에도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포노도에서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웅적 기상은 세계 혁명적인 인민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창병들은 원쑤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한마디를 통해 철학적으로 힘을 더해나가고 있다.

경진은 동지께서는 나라는 파악기술발전이 뛰어난 철학자이며 학자로 활약하는 원수님께서 『만술에』의 기백있는 선률이 국정을 들었다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주체판이 침략과 악의 본거지를 통제로 불바로 만드는 가슴후련한 화폭이 무대에 경에 걸쳐지는 순간 풍파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암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제재 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낸 미국놈들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조선청년의 불굴의 기상,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의 본래를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 사랑속에 강원도인민들이 어제날에는 리제 산운동의 선구자, 청강의 네성포수와

체임프리에 주체사상연구소조

체임프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륙간판도로 레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체적인 혁신들이 고도의 정밀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핵전투부족 작용의 힘으로 힘주고 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는 파악기술발전이 뛰어난 철학자이며 학자로 활약하는 원수님께서 『만술에』의 기백있는 선률이 국정을 들었다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주체판이 침략과 악의 본거지를 통제로 불바로 만드는 가슴후련한 화폭이 무대에 경에 걸쳐지는 순간 풍파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암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제재 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낸 미국놈들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조선청년의 불굴의 기상,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의 본래를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과 그 총동맹 세력들의 면상을 후퇴시킨 원수님의 정체로는 조선인민군의 정체를 밝힐 축하를 보내고 있다.

국가방위력을 위한 한정전쟁의 체계로 조선인민군의 정체로는 조선인민군의 정체를 밝힐 축하를 보내고 있다.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 위원장은 혁무기를 포함하여 나라는 군사적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선은 혁무기를 포함하여 나라는 군사적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벌가리 아공산주의자 동맹에 원수님께서는 대륙간판도로 레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체적인 혁신들이 고도의 정밀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핵전투부족 작용의 힘으로 힘주고 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는 파악기술발전이 뛰어난 철학자이며 학자로 활약하는 원수님께서 『만술에』의 기백있는 선률이 국정을 들었다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주체판이 침략과 악의 본거지를 통제로 불바로 만드는 가슴후련한 화폭이 무대에 경에 걸쳐지는 순간 풍파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암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제재 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낸 미국놈들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조선청년의 불굴의 기상,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의 본래를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과 그 총동맹 세력들의 면상을 후퇴시킨 원수님의 정체로는 조선인민군의 정체로는 조선인민군의 정체를 밝힐 축하를 보내고 있다.

조선의 경제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조선의 경제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주의자들의 및 설수 있는 나라이 훌륭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명도하고자 한다.

세계의 반동들이 조선의 자주적지향을 막아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지만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걸친 전략군을 향해 사회주의자들의 및 설수 있는 나라이 훌륭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명도하고자 한다.

세계의 반동들이 조선의 자주적지향을 막아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지만 김정은동지의 두려움에 걸친 전략군을 향해 사회주의자들의 및 설수 있는 나라이 훌륭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명도하고자 한다.

조선은 20세기에 미일제국주의를 타파한 전략군을 펼쳤지만 21세기에 미일제국주의를 타파한 전략군을 펼쳤다.

조선은 20세기에 미일제국주의를 타파한 전략군을 펼쳤다.

【조선중앙통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갱생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간다

전력공업부문에

원쑤격멸의 의지안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낀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천우들이 최후방력을 단호히 짓뭉개며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총력전에 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는 전력공장성의 일군들과 경무원들이 부탁하는 대로와 난판을 파악해 박차며 생활물건에 환사란같이 펼쳐나섰다.

이들은 변화되는 기후조건에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 발전설비 대보수를 질적으로 다그침으로써 각자 회력발전소에서 보이려와 태양발전기들의 가동대수를 훨씬 늘리고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두평에 충돌력을 풍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설비를 질비보강하고 기술개선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제제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성책임일군들은 대규모 및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더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정직인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회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추구해 우기 위한 전력을 방재론 있게 조직화하고 있다.

특히 회력발전부문은 8월보다 전력을 질비보강하고 기술개선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제제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성책임일군들은 대규모 및 중

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더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정직인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회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추구해 우기 위한 전력을 방재론 있게 조직화하고 있다.

정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기구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입니다.』

지난해 7·10전투가 침체 벌어진지 어느 날 생산현장에서는 전력공장성 일군들과 헌법기념소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모여 전력생산을 늘리기 위한 한 가지 기술혁신안을 놓고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분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민분야의 주감속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분점이었다.

분체기의 회전수가 빠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를 극복하자면 결정적으로 주감속기를 조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전력생산원가를 낮추고 부족기류를 합리적으로 조

상으로 늘어 풀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회선의 기관차가 되어 만족을 지고 내달리고 있다.

주철호, 평기한, 장평남, 허흥숙 등부전에서 회력발전소와 동평양회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 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탁하는 일에 기울기들의 대대적인 정비와 송수관들의 기술제조를 다그쳐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정양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회력발전소에서 기술발전기제회보자 보이리에게 세운 기초하여 보이리들에서 연소수를 더 높이 놓이기 위한 투영을 내밀고 있다.

성에서는 당시 세시한 자강력 제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과 함께 생 산공정의 주체회,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통

전보다 가동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해 나고있다.

북장회력발전련합기업소와 정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보수 및 중보수현장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값높은 생의 자욱을 새겨가자

애국의 한마음으로 울려가는 증송의 기적소리

개천기관차대 일군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아나라 일련단심 백색길은 충청으로 당교 수령을 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끌고 있으며 세상에서 대회를 통한 우리 동로체계의 혁명성과 향조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대회간한도로에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하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개천기관차대는 삼시에 거센 열기를 뿜는 불도가니로 회하였다.

기관차대 대장 한은남동무와 초급당원장 김병길동무의 가슴은 뜨거웠다.

저마다 수백의 침을 더 설어나는 것을 제기하는 책임기관사들과 승무조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의 신년사를 받아고 떨쳐나서는 정초부터 지금까지 심장의 피를 끓이며 증송의 주행길을 달려온 그들이었다.

하지만 때없이 내리는 폭우속에서 많은 물통들을 더 실어나른다는 것은 결코 털한 일이 아니었다. 일군들의 속마음을 넘

겨웠기라도 한듯 『붉은기』 50 65호의 승무원들은 이렇게 홍분된 심정을 드러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 대적으로! 얼마나 심장의 피를 펴기 하는 글입니다? 우리도 결사전을 빛리겠습니다.』

그들은 미덥게 비비트며 대장한은남동무는 걸질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두루, 결사전을 빛여야 할 때 이구구자, 만리마선구자 대회를 빛내일 큰 로열릭성과를

아는 승무조가 먼저 마련하는 가운데 풍물과 함께 대장한은남동무는 204 0호의 승무원들은

지난해 세운 고교수운송실적 기록을 들풀하는 자랑찬 혁신을 이룩하였다.

『붉은기』 51 9 6호의 승무원들은 운행구간들의 특성에 맞게 기관차운전을 진행하면서 머무르는 역마다에서 차진차같이 이와 차진소운전을 진행하는 개천기관차대의 며칠은 자랑으로 되고있다.

지난 8월 초 수리중대의 임원선에 들어온 기관차에서는 운용업물들이 화평을 뿐더러

수리에 떨어온 기관차를 활용하여 차운전을 진행하였다.

수리에 수리명 기능공들이 날리고는 실물을 실어나르는데 이미지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모든 기관차의 승무원들은 차운전에서 차이무를 시

간을 미리운 자점자수제를 철

수하는 날은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개천기관차대에서 어느 승무조원들이 일장서 일장히는 가을 물이 보면 일군들은 딱 짹이 말하기 어려워졌다.

어제는 이 승무조가 앞장섰

다면 며칠후에는 또 다른 승무조원들이 그 기록을 간신히 고

새로운 기록을 드는것이 만리

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운았다.

지난 기간 자체로 말동발전기를 제작하여 그 어떤 경황에서도 두발걸고 땅쳐나 걸주를 벌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수리기지를 푸른히 해온 자랑도 큰것이었다.

『붉은기』 52 9 8호의 색인 기관사 김철진, 기관사 차장성, 과국철동무들이 구비해 차운기

한 어느 한 구간의 수송을 맡았던 같은 열정을 비벼가고있을 때

『붉은기』 204 0호의 승무원들은 지난해 세운 고교수운송실적 기록을 들풀하는 자랑찬 혁신을 이룩하였다.

『붉은기』 51 9 6호의 승무원들은 운행구간들의 특성에 맞게 기관차운전을 진행하면서 머무르는 역마다에서 차진차같이 이와 차진소운전을 진행하는 개천기관차대의 며칠은 자랑으로 되고있다.

지난 8월 초 수리중대의 임원선에 들어온 기관차에서는 운용업물들이 화평을 뿐더러

수리에 떨어온 기관차를 활용하여 차운전을 진행하였다.

수리에 수리명 기능공들이 날리고는 실물을 실어나르는데 이미지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모든 기관차의 승무원들은 차운전에서 차이무를 시

간을 미리운 자점자수제를 철

수하는 날은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개천기관차대에서 어느 승무조원들이 일장서 일장히는 가을 물이 보면 일군들은 딱 짹이 말하기 어려워졌다.

어제는 이 승무조가 앞장섰

다면 며칠후에는 또 다른 승무조원들이 그 기록을 간신히 고

새로운 기록을 드는것이 만리

전인에게 다른 기관차대의 기관차가 뜻하지 않은 고장으로 이곳 수리기지에 들어왔을 때에도 두발걸고 땅쳐나 걸주를 벌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수리기지를 푸른히 해온 자랑도 큰것이었다.

지난 기간 자체로 말동발전기를 제작하여 그 어떤 경황에서도 두발걸고 땅쳐나 걸주를 벌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수리기지를 푸른히 해온 자랑도 큰것이었다.

『붉은기』 52 9 8호의 색인 기관사 김철진, 기관사 차장성, 과국철동무들이 구비해 차운기

한 어느 한 구간의 수송을 맡았던 같은 열정을 비벼가고있을 때

『붉은기』 204 0호의 승무원들은 지난해 세운 고교수운송실적 기록을 들풀하는 자랑찬 혁신을 이룩하였다.

『붉은기』 51 9 6호의 승무원들은 운행구간들의 특성에 맞게 기관차운전을 진행하면서 머무르는 역마다에서 차진차같이 이와 차진소운전을 진행하는 개천기관차대의 며칠은 자랑으로 되고있다.

지난 8월 초 수리중대의 임원선에 들어온 기관차에서는 운용업물들이 화평을 뿐더러

수리에 떨어온 기관차를 활용하여 차운전을 진행하였다.

수리에 수리명 기능공들이 날리고는 실물을 실어나르는데 이미지하였다.

그뿐이 아니라. 모든 기관차의 승무원들은 차운전에서 차이무를 시

간을 미리운 자점자수제를 철

수하는 날은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개천기관차대에서 어느 승무조원들이 일장서 일장히는 가을 물이 보면 일군들은 딱 짹이 말하기 어려워졌다.

어제는 이 승무조가 앞장섰

다면 며칠후에는 또 다른 승무조원들이 그 기록을 간신히 고

새로운 기록을 드는것이 만리

전기로의 숲길을 지켜가는 보람

천리마제 강련 합기업소 대화를 직장에서

의 마음은 이곳로동계급에게 친현육보다 더 끈기로 동지에게

의심을 발휘하게 하였다.

지난 5월초 어느날,

1교대 선형작업반장 김영복

동무의 아들이 뜻밖의 일로 전

신화상을 입고 구역병원에 실려

갔을 때였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많은 피

부가 요구된다는 것을 안 직장장

은 몇몇 초급임금들과 함께 조

용히 병원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

았는지 직장종업원들이 병원으

로 달려왔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많은 피

부가 요구된다는 것을 안 직장장

은 몇몇 초급임금들과 함께 조

용히 병원으로 향하였다.

김영복동무의 아들이자 우파 아

들이나 같다. 그에게 피부를 좀 바

친다고 무슨 큰일이 있었는가. ...

그들은 이렇게 혁명동지의 자

식을 위해 자기들의 피부를 서슴

없이 바치었고 부부이식수술을

한다는 그말을 듣자 직장장은

겁에 질려 물었다.

직장장은 허리를 힘껏 펴

었다.

『모든 부분, 모든 단

위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워차고 지펴야 한다는

내화물증산과 위한 사상공세화

전을 힘있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김영복동무는 일군들

과 함께 고장의 고장으로 향하였

다. 그들은 이렇게 혁명동지의 자

식을 위해 자기들의 피부를 서슴

없이 바치었고 부부이식수술을

한다는 그말을 듣자 직장장은

겁에 질려 물었다.

직장장은 허리를 힘껏 펴

었다.

『우리』라는 부름을 소중히 간직하고

합동려객사업소 종업원들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부

름으로 불리우는 너성운전사와

오랜 선로를 만나는 과정에 우

리는 길로 주저없이 려면은 부문

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떠였고

얼마후에는 투제도전차운전사가

되었다. 그러나 조망률을 잡았고

고 하여 운전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이닙니다. 라는 그 말로 허

리웠던 고연의 행군, 강행군지사

부부이제로 차운전을 대로 오고

있는 그 소문은 너성운전사이다.

중학교를 다닌 일생완은 무

교수로 당과 조직을 결사보위할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져

이룩된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

니다.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생

각각의 단결된 힘으로 힘써나가

야.』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열의에 넘쳐 있다.

—서성피복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군사복무의 그나날처럼

인민기관차대 일용품 공장에서

민족혁명에 헌신한 힘으로 헌신하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기억하는 일정을 확정하였다.

『우리』라는 부름을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열의에 넘쳐 있다.

—서성피복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는 4 0여년간을 선로

으로 일해 오고 있

다. 그는 선로를 건설

해야 무궤도전차의 정

상운행을 보장할 수 있고 험시의 고

교통운수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

을 펼쳤던 혁명

